

제 11차 충청중국포럼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국방부 25사단 조현규 부사단장, 前 주중한국대사관 무관)

일시 : 2016. 5. 25(수). 13:30-16:00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목 차

1. 프로그램	1
2. 강사소개	2
3. 발제자료(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3
4.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소개	21

I. 행사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13:30-13:35	- 인사말 :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사회 :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3:35-13:40	- 기념촬영	
13:40-14:50	- 강연: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 주중한국 대사관 무관)	
14:50-15:00	- 휴식	
15:00-15:40	- 참석자 토론 및 질의 응답	
15:40-	- 폐회선언	

II. 강사 소개

■ 조현규 부사단장 프로필

□ 직 위 : 국방부 제25보병사단 작전 부사단장

□ 학 력

- ◆ 1981~1985 육군사관학교 중국어과 졸업(41기)
- ◆ 1987~1990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 ◆ 1996~1999 중국인민대학 석사(국제정치)
- ◆ 2006~2009 중국인민대학 박사수료(국제정치)

□ 경 력

- ◆ 1992~1996 육군정보학교 중국어/중국정세 교관
- ◆ 2001~2006 국방부 정보본부 중국총괄장교
- ◆ 2006~2009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
- ◆ 2009~2011 국방부 정보본부 아시아/중동과장
- ◆ 2011~2014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무관
- ◆ 2015~현재 제25보병사단 작전 부사단장

Ⅲ. 발제 자료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 조현규 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관 무관

13:40 – 14:50

中國의 국가전략 및 對 韓半島 정책

육군 대령 조 현 규

1

목 차

- 강 사 소 개
- 중 국 개 황
- 중국 권력구조 (黨、政、軍)
- 중 국 의 국 가 전 략
- 중 국 의 대 외 전 략
- 중 국 의 對韓半島 정 책
- 중국을 이해하는 Key-word
- 맺 는 말

2

중국 개황

- 국명: 中華人民共和國(People's Republic of China)
- 건국: 1949. 10. 1
- 수도: 北京(인구 1961만명)
- 면적: 960만km²(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 국경선: 22,800km(남북/동서 각각 5,500km), 14개국과 접경
- 행정구역: 22개 省, 4개 直轄市, 5개 自治區, 2개 特別行政區
- 인구: 13억 6,072만명
- 종족: 한족(漢族) 외 55개 소수민족(1억 643만명, 8.5%)
 - 조선족: 183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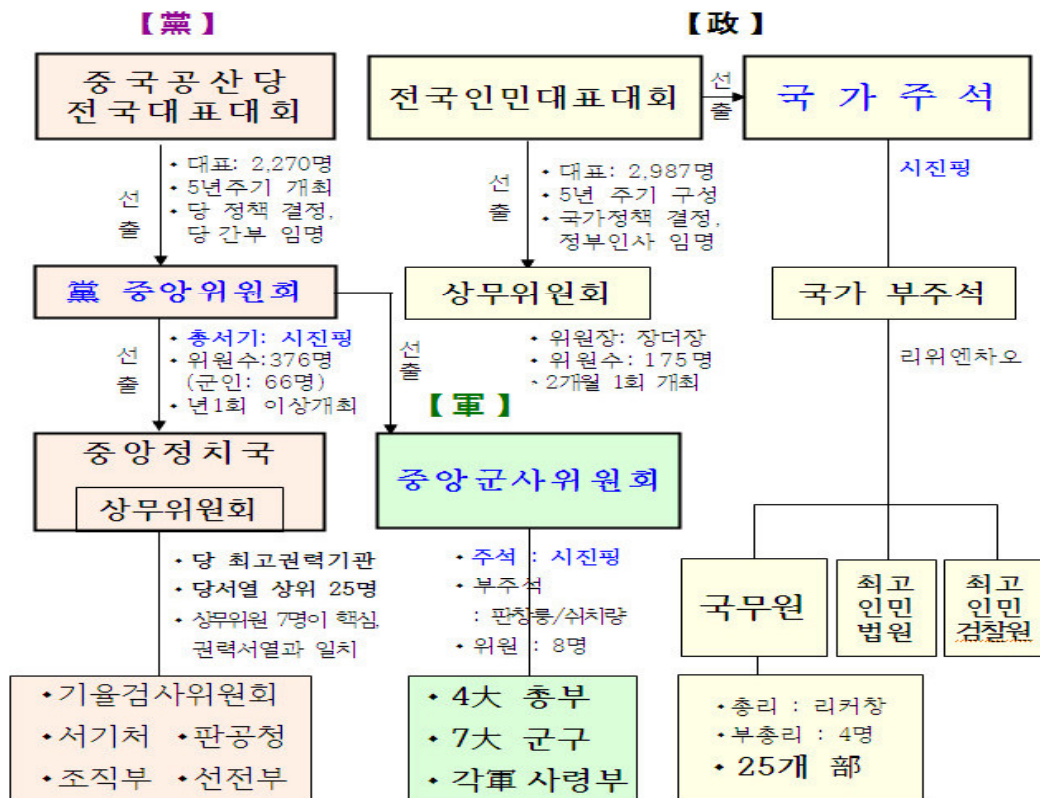
3

중국 개황(계속)

- 국기: [五星紅旗](#)
- 국화: 모란
- 경제
 - 화폐: 元(위엔) * 1USD≒6.2元, 1元≒180원
 - GDP: 10조 3,554억불(1인당GDP: 7,572불)
 - 교역규모: 4조 3,030불(수출: 2조 3,427억불, 수입: 1조9,603억불)
 - 외환보유고: 3조 8,430억불
 - GDP성장률: 7.4%
- 국방
 - 총병력: 228.5만(육 160만, 해 25.5만, 공 33만, 제 2포병 10만) * 武警: 66만
 - 국방예산('15): 1,432억불

4

黨・政・軍 권력구조



* 시진핑은 국가주석・黨총서기・중앙군사위주석 겸임 최고 통수권자

권력구조의 특징

- 黨조직과 国家조직으로 구분
- 전국대표대회(당대회):최고권력기관(5년임기)
- 전국인민대표대회(金人木):명목상 최고권력기관(국회)
- 중앙군사위원회:軍 최고통속기관 (주석:習近平)
- 국무원:행정부(국무총리실)

중국의 국가 전략

■ 국가 전략(국가 목표)

- 中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제시, 시진핑이 '中國夢'으로 명명, '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선포

■ '中國夢' 달성 목표 시기: 2개의 100년

- 2021년(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小康社會'건설
- 2049년(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완성
 - 富强, 民主, 文明을 갖춘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국가'건설

7

중국의 국가 전략(계속)

■ 中國夢'실현을 위한 추진 중점

- 안정된 대내외 여건 조성, 국가 현대화 및 지속적 경제 성장을 통한 평화적 부상
 - 국내안정,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 對美관계 안정, 경제개발
- 強軍 건설을 통한 핵심이익 수호 및 강대국 지위 확보
 - 핵심이익: 국가주권, 영토, 국가통합, 발전이익(에너지, 해양수송로 등)
 - '強軍夢' 달성
 - UN안보회 상임 이사국, 亞太지역 강국으로써 책임있는 역할 수행

8

중국의 대외 전략(계속)

■ 기본 이념 및 방침

- 和平共處 5項原則('82년 헌법)
 - 영토/주권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 和平發展('11년 '평화발전 백서')
 - 공동번영/발전(南미/아프리카지원, 해양협력기금조성, 남중국해공동개발)
- 중국이 촉구하는 국제질서('12년 제18차 당대회 업무보고)
 - 평등/민주 국제관계, 상호 신뢰/포용/협력
 - 국제 정의 공동 수호, 세계 평화 안정, 공동 안보
 - 각국 주권, 문화, 발전 방식의 다양성 존중

9

중국의 대외 전략(계속)

■ 대외전략기본 이념 구현 방안(12.11 제18차당대회 공작보고)

- '평화 발전' 노선 견지('和平共處 5項原則'고수)
- 독립, 자주, 평화적 외교 정책 지속
-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결연히 수호
 -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 분쟁 해결
- 세계 각국의 합법적 정권을 전복하려는 행위 반대
 - 북한문제, 시리아사태 등
- 일체의 테러리즘 반대
- 패권주의, 강권주의 반대- 중국 스스로 패권 불추구선언(中國不稱霸)

10

중국의 대외 전략(계속)

■ 대상별 정책 방향

– 핵심이익

-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 결연히 수호
- 영토 및 역사 문제에는 원칙적 입장 견지, 타협 거부

– 美國 및 선진국

- 미국과는 충돌, 대항하지 않고 상호 존중, 협력, 공영
- 선진국과의 관계 지속 개선, 공동발전의 협력 영역확대 및 합리적인 갈등 관리

11

중국의 대외 전략(계속)

■ 대상별 정책 방향(계속)

– 주변국: 이웃을 동반자로 선린 우호/호혜 협력 심화

- 대 주변국 외교 이념: 親, 善, 惠, 容
-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홍보
- 한반도 문제에 대한 3대 원칙 고수

– 개발도상국: 연대와 협력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 정당한 이익 공동수호,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대표성/발언권 지지
- 적극적 다자외교 참여, UN/G20/SCO/BRICS 역할 지지
- 공공외교, 인문분야 유대강화, 해외에서의 중국의 합법적 권익 수호

12

중국의 對韓半島 정책

■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

– 한국

- 긍정적 측면: 경제발전모델, 비중있는 무역 상대국, 문화적 공감대
- 부정적 측면: 정치/안보면에서 한-미동맹, 북한 문제 등 갈등, 변수 보유

– 북한

- 긍정적 측면: 전통적 사회주의 혈맹국, 東北亞 세력 균형의 수단
- 부정적 측면: 경제위기, 北核 문제 등 東北亞 안보위협 국가

※ 남북한 모두 戰略的 價値를 구비 → 等距離 外交 전개

13

중국의 對韓半島 정책(계속)

■ 중국의 對韓半島 정책 3원칙

– 한반도 非核化

–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지지

14

중국의 對韓半島 정책(계속)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 ↳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지지
 - 외세개입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견제, 봉쇄 우려
 -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
 - 주변국의 평화 안정 도모, 평화적 방식의 갈등 해결 추구
 - 한반도 자주통일을 통한 臺灣 통일 과정에서 외세개입 명분 제거

15

중국의 對韓半島 정책(계속)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일방에 의한 흡수 통일 반대, 남북 합의에 의한 통일 희망
 - 자국의 지속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점진적 통일 희망
 - 한반도 통일방식이 중국이 취하고 있는 '1國家 2體制' 적용 희망
- ※ 중국은 한반도 통일 자체 보다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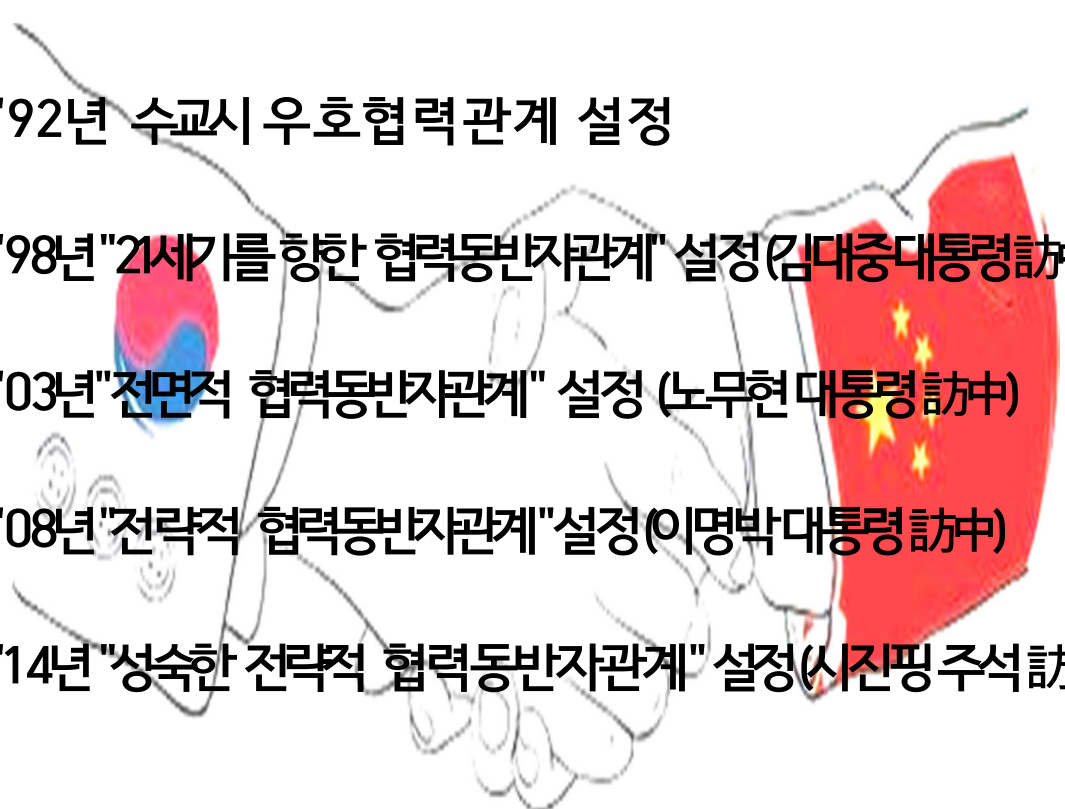
16

중국의 對韓半島 정책(계속)

-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중국의 외교 활동 중점
 - 남북한 等距離 外交 및 한반도 현상 유지
 - 책임있는 大國 이미지 구축을 위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 천명
 - 중국의 경제발전이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됨을 강조
 - 통일 이후 한반도가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 통일 이후 영토회복·역사문제 거론 움직임 사전 차단 노력
- ※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차원에서 南北 等距離 實利 外交 추구

17

한-중 관계 발전 경과

- 
- '92년 수교시 우호협력관계 설정
 - '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 설정(김대중대통령訪中)
 - '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설정 (노무현대통령訪中)
 - '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설정(이명박대통령訪中)
 - '14년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설정(시진핑주석訪韓)

한-중 교역 현황

-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 (홍콩제외)
- '14년 한·중 교역 현황 : 총 42,354억불
 - 對中수출 : 1,453.3억불 (전년 대비 + 3.7%)
 - 對中수입 : 900.7억불 (전년 대비 +5.7%)
 - 무역 흑자 : 552.6억불 * '13년도 : 478억불



사회 · 문화 교류 현황

<'15. 11월 기준>

재중국민 (조선족 제외)	약 41만명 (유학생 6만3천명 포함) * 교민단체측 추정 : 약60만명
한·중 국제결혼	9,418건 * 총 국제결혼 건수의 약 35%
중국 진출 기업수	약 2만 1천개 * 중국측 통계 : 약 5만개 * 재중 한국상회 : 49개 지역 상회, 회원 6,010개 업체
한·중 간 국민왕래	총 1,031만명 (방중 418만명, 방한 613만명) * 한·일 간 방·일 244만명, 방한302만명 한·미 간 방·미 98만명, 방한69만명
항공편 운항	84개 노선 주당 883편 운항 (韓 6개 도시, 中31개도시) * 한·미 365편, 한·일 538편, 중·일 731편, 중·미 238편
카페리 운항	주당 38회 운항 * 韓(인천·평택·군산)- 中(산둥성 지역·천진·대련·단둥) 간

한 · 중 주요 현안

■ 북핵 문제

〈핵실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협의 중〉

- 시진핑,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비핵화와 WMD 확산 방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 밝힘 ('13.1 訪中 특사단 접견시)
- 中 · 美 6자회담 수석대표, 안보리 결의안 이행 방안 논의 ('13.1, 북경)
- 中 외교부副部长, "한반도 핵무기 출현 반대" 표명 ('13.2, 홍콩 방문시)
- 中 · 러 정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 발표 ('15.5, 모스크바)

※ 한 · 중 전략적 공조 下, 북한 핵실험 자제 · 압박 조치 가시화

탈북자 문제

- 中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불법 월경한 자'로 규정, 국제법 상의 '난민' 지위 불인정 및 타국이나 국제기구의 개입 거부
 - 탈북자 유입에 따른 치안 불안정
 - 티베트 · 신장 위구르 등 소수민족 분리독립 운동 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와 연루될 가능성 우려하여 탈북자 통제 강화
- 中은 對北관계 및 국내 안보 요인으로 한측 요구를 거부하는 기존 입장 고수로 韓 · 中갈등 요인 잠재

이어도 영유권

- 한·중 EEZ 확정 방식에 대한 기준 상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
 - 我 입장 : 실효적 지배 중이므로 '조용한 외교'로 대응
 - 中 입장 : 해양 탐사, 순찰 확대, 법·제도 정비 등 쏠방위적 대응
 -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한 적극적 순찰·감시, 제도정비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 범국가적 대응 필요
 - 軍 : 해상경계 및 초계강화
 - 유관기관 : 국제법적 근거 지속 축적, 학자·언론·NGO에 의한 국내외적 공감대·여론 조성 등
- * 시진핑 주석 '14.7.3~4. 방한하여 양국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再가동하기로 합의 후 한·중 해양경계획정 차관급(국장급에서 격상)회담 실시 ('15.12.22. 서울)

북-중 교역현황

- 양국관계 악화국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 政經 분리방침에 따라 中·北 무역규모는 지속 증가

〈中·北 교역현황〉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對北수입	4.7	5.8	7.6	8.1	11.9	24.6	24.8	29.2	28.4
對北수출	12.3	13.9	20.3	18.1	22.8	31.6	34.5	36.3	40.2
총액	17	19.7	27.9	26.2	34.7	56.2	59.3	65.5	68.6

- 북한의 對中 무역 의존도 지속 증가 추세
 - * 북·중 무역액 : '14년 68.6억 달러(中→北 수출 40.2억불, 수입 28.4억불)
- 한편으로 북한은 對中 의존도 심화를 경계
 - * "수입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은 족쇄를 차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길" ('15.3월, 노동신문)

중국을 이해하는 주요 Key Word

- 정치: 一個 中心, 兩個基本點, 四項堅持, 中國 特色 社會主義
四個現代化, 一國兩制
- 외교: 韜光養晦, 和平崛起, 和平發展, 有所作爲,
新型大國關係(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 경제: 新常態(New Normal), 一帶一路(One Belt and One Road)
- 사회: 反腐, 老虎蒼蠅一起打
- 군사: 島鏈

25

맺는 말

- 중국은 한반도 발전/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
 - 중국은 자국이익에 기반한 실리위주 對南北 등거리 외교
 - 현 상황에서 장기간 '不統不亂' 정책 유지
 - 중국의 G2부상 직시, 共生共榮, Win-Win 추구
 - 중국에 대한 관심, 이해 노력 필요
- ※ 국가간 관계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추구가 최고의 가치

26



Coffe Break(중국 노래 ♪)

- [喆密密](#)
- [只要你過得比我好](#)

최근 중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한 후 생긴 유머^^ ㅋㅋㅋ

(第一發)

上海的朋友說:昨晚新聞播放開放二胎政策後, 一晚沒睡! 沒法睡!
整棟樓都在晃?

(第二發)

兩個老哥們喝酒.

甲:政策行了,你還行不行?

乙:不換人肯定不行。

甲:就是說嘛!開放二胎有啥用啊?

開放二奶才是硬道理。

(第三發)

昨晚和老婆商量生二胎的問題,

老婆說,我不生了,你愛和誰生就和誰生。

我的天,國家政策和家庭政策同時放寬,誰能受得了呀,幸福來得太突然.

(第四發)

中國放開二胎後,記者訪問一位老先生感想?

老先生很憂傷的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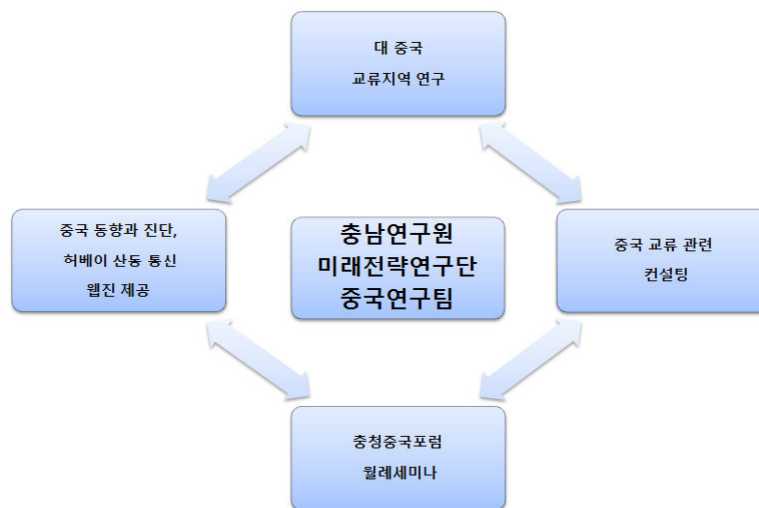
當年老子硬的時候,政策比老子還硬;

現在政策軟了,老子他X媽比政策還軟……

Ⅳ.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허베이-산동통신’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및 계획

회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	2015.7	여름휴가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리홍보 (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 (금강대학교 총장)
-	2016.12	연말 휴가	
7회	2016. 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 (광양자유무역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 (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 (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 주중한국대사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 (공정여행 공감만세 대표)
-	2016.7	여름휴가	
13회	2016.8.31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헤이룽장 실크로드 경제벨트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 (특허청 과장, 전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5회	2016.10.26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형성동향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6회	2016.11.30	중국의 해양-산업 발전동향과 충남의 과제(해양경제 or 자동차, 철강, 화학산업 등)	해양수산개발원 or 산업연구원
		or 충남도 및 시군 대(對)중국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 당진-서산-태안, 보령-서천, 금산 등) 충남거주 중국인유학생 좌담회	시군 담당자 공주대 or 충남도립대
-	2016.12	연말휴가	

※ 상기 일정은 발제자 섭외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MEMO

MEMO

MEMO

MEMO

